

## 제 10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8월 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자체가 전체의 본성에 대한 질문 및 어떤 특정한 우주론을 향하는 것은 아닌가? 근대 자연과학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인간에게서 인간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전체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근대 자연과학에서는 인간 이하의 것들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전혀 파악될 수 없다.

인간을 주체로 보지 않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객체로 보게 되면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가 탄생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인간을 근본으로, 주제이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인간을 객관화 시키고 나면 정치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고대 정치철학은 인간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결코 특정한 우주론에 의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무지에 대한 지식이었다. 무지의 지식은 무지가 아니다.

무지에 대한 지식이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이다.

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암묵지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지에 대한 지식은 이성의 바깥에 더 많은 지식이, 이성이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빛이 어둠을 가르더라도 어둠을 정복할 수는 없는 원리와 같다.

소크라테스는 전체의 신비로움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인간의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들보다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상황에 더 익숙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가 불변의 이데아의 관점에서, 즉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문제들의 관점에서 인간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황을 구명한다는 것은 전체에 대한 인간의 개방성을 구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우주론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고대 정치철학의 기초였다.

정치문제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 대상인 객체도 인간이다.  
모든 정치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철학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다. 전체는 부분들의 총체이다. 전체는 우리에게 난해하지만 우리는 부분들을 안다. 우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결코 지금까지 극복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원론에 의해서 규정된다. 한 극단에서 우리는 동질성의 지식을 발견한다. -중략- 다른 극단에서 우리는 이질성의 지식을 발견한다. 특히 이질적인 목적의 지식에서 그러하며 그러한 종류의 지식의 최고 형태가 정치론과 교육론이다. 후자의 지식이 전자보다 다음의 이유에서 우월하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삶을 완전하거나 전체로 만드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에 대한 지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란 Total적인 이성이 규정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말할 수 없는 지식, 아는 것 이전의 지식을 포함하는 Universe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철학은 전체를 함축하는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고,  
정치는 그런 부분을 통해 전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육은 그렇게 쌓아온 전체에 대한 지식을 영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러므로 현상들에 통일성을 부과하거나 동질성의 지식 아니면 목적들의 지식들 가운데 하나를 절대화함으로써 그러한 쟁점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두 개의 반대되는 유혹에 끌리거나 매혹되고 만다. 즉, 수학이나 수학과 유사한 모든 것들에 의해 야기되는 능력의 유혹, 그리고 인간 영혼과 그것의 경험에 대한 명상에 의해 야기되는 겸허한 외경의 유혹이다.

이것은 철학이란 것이 수학과 같이 어떤 현상들을 압축하고 요약하는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현상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물리현상을 뉴턴 물리학으로 보느냐, 상대성이론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전혀 다르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과, 심미적인 것 이 둘의 하나에만 인간이 경도되는 것을 말한다.